

달콤하게... 시원하게... 이룬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보자

20~22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서 복분자, 수박, 장어를 테마로 한 '제22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싱그러움 신록으로 물든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 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축제

무더운 여름에는 잘 먹어야 더위도 이겨낼 수 있다. 축제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단연 딱거리 아닐까?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구매하고 고창 수박을 푸짐하게 시식해볼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박 빨리 먹기, 장어를 3종경기, 맨손장어잡기가 진행된다.

또한 수박카빙대회와 각테일 쇼도 진행해 볼거리도 제공한다.

장어잡기 행사때 장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질된 장어로 교환해주며, 백호장어를 잡을 시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어린이풀장 운영과 물총싸움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물총 싸움과 어린이 풀장을 운영해 관광객과 한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물총을 쏘아대며, 때 이른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린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인기가수인 김수찬과 요요미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디의 식전공연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청춘버스킹, K-POP 란덤플레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택배 접수를 통해 집까지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창 수박'

고창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은 복분자와 수박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이 마련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박을 들고 가기 힘든 관광객들을 위해 현장 택배 접수도 진행된다. 수박 판매장 옆에서 택배 접수 부스를 운영하여 고창군이 인증하는 오리지널 고창 수박을 축제장 판매가격(택배비, 포장비 별도)에 구입할 수 있다.

수박 빨리 먹기 · 맨손장어잡기

수박카빙대회 · 각테일 쇼 등 다채

DJ와 함께하는 물총 싸움도 진행

고창 수박 · 복분자 구매도 손쉽게

▲여름 과일의 대명사 '고창 수박', 복된 분들이 드시는 '복분자', 대표 보양식 '풍천 장어'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로 분류되는 고창 수박의 인기 비결은 '당도·식감·품질'이다. 무더운 여름 갈증 해소에 딱 맞는 제철 과일인 고창 수박의 향긋한 단맛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고창 수박은 지난해 지리적표시제에 정식 등록되어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명품수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창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복된 분들이 드시는(드시는) 음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 쌉쌀한 특유의 맛과 향에 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 풍천 장어는 무더위 여름을 맞아 기력 회복과 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예로부터 풍천장어는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탱탱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축제와 함께 즐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고창의 이모저모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개나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유적이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과 지주식김이 나오는 고창갯벌도 2021년 여름 세계자연유산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병바위, 운곡 랍사르습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곳이 많다.

성큼 다가온 여름 더위 앞에 고창의 복분자, 수박으로 건강을 챙기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 둘러보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보자.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